

프로젝트

세계 총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Nº 170, 2018 년 9 월

Original: French

부에이노스 아이레스 세계 총회의 최종 문서는 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서라고 말해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하여,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야 할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직관이 (성령의) 영감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투자를 가지고 청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은총을 확인했을 때, 2018 년 세계 총회는 적어도 2013 년- 2018 년 동안 활동한 세계 상임위원들의 마음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CLC 의 카리스마를 살아내는데 있어 더욱 심화되고 통합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카리스마로 이미 강력하게 충분히확인되었던 것을 재차 심화시키고 통합한다니? 이런 제안은 도전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까닭은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자만이나 심지어 자아도취에 빠져 같은 것을 되풀이한다는 비난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CLC 에게 평신도 이냐시오 사도직 공동체로서 CLC 의 정체성과 소명과 사명에 대해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이 제안을 우리가 청해야 할 은총으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감히 CLC 는 교회와 세상을 위한 선물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이런 진술의 의미 및 특별히 함축하는 바에 대한 의문에 대해 진지하게 아직 피력한 바가 없습니다.

프란시스 교황님의 반복적인 부르심의 맥락에서, 우리는 식별의 테마,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식별의 테마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주제”를 다루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70 여 개국에서 온 204 명의 대표들과 실시간의 공동식별을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방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안전망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 거의 전부가 어느 정도의 저항과 의심의 순간들, 따라서 통제력을 다시 얻고자 하는 유혹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총회 자체는 믿음의 대단한 행위를 이루어냈으며 하느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바, “주여,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자유와 기억과 이해와 의지를” 을 체험하였습니다

“최종 문서”는 비정형적이기는 하지만 처음 우리의 직관과 그간 우리가 체험했던 일들과 일치합니다.

물론 각 세계 총회의 최종 문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부에이노스 아이레스 총회에서 나온 탄력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문서는 전에 없이 최종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텍스트가 분명해지도록 허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 자체의 비정형성 만큼이나 이례적으로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문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인도되기 전부터 여정의 이야기는 그 자체 안에 의미 있는 일, 의미있는 체험을 품고 있습니다. “체험”이라는 단어는 교재에 10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여러분의 대표의 살아 있는 증언을 들으면서 읽으라는 이유입니다. 선택된 단어들과 행간을 읽는 것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여러분이 회의 소집 편지 및 프로젝트 168 과 169 을 다시 읽으면서 보다 넓은 관점을 가지고 문서를 보라고 권합니다. 이러한 준비 문서들은 연속성뿐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진 수정보완을 통해서도 총회의 전 과정을 비추어줍니다.

다른 도구들이 더 있습니다.

불가피한 재독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진행보조자료(Progressio Supplement)를 발간할 것입니다. 이 보조자료(#74)에는 초청연사들의 견해뿐 아니라, 과정의 기초적인 재독과 우리가 공동식별 때 따랐던 방법적인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2019 년 3 월 25 일 세계 CLC 의 날을 위한 준비로서, 다음번 과제인 프로젝트 #171 은 이번 총회 동안 받았던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온 공동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범세계적인(보편적인) 부르심에, 또한 동시에 특정 사안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계공동체에 봉사할 새 상임위원회

새 집행위원회를 소개하기 위해, 나는 어느 대표의 말을 대강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합니다: “ 선출되실 분들은 식별하는 상임 위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팀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다 판단이 서시겠지만, 유머감각이 있고 간단히 우리들 얼굴을 봄으로써 앞으로를 예상하고 싶다면 보십시오. 여기 이분들이 바로 상임위원들입니다.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Alwin & Rojean Macalalad (Executive Secretaries), Diego Pereira (Consultor), Fernando Vidal (Consultor), Najat Sayegh (Consultor), Daphne Ho (Consultor), Catherine Waiyaki (Secretary), Ann Marie Brennan (Vice President), Aeraele Macalalad, Denis Dobbelstein (President), Herminio Rico SJ (Vice Ecclesiastical Assistant). *not in photo: Arturo Sosa SJ (Ecclesiastical Assistant)

전체 상임위원들과 함께,

Denis Dobbelstein
CLC 세계 CLC 의장